

昆盧峯

萬象을

굽어 보기란——

무릎이

오들오들 떨린다.

白樺

어려서 늙었다.

새가 나비가 된다

정말 구름이

비가 된다.

옷 자락이

칩다.

一九三七、九月、

비로봉

만상을

굽어보기란——

무릎이

오들오들 떨린다.

백화

어려서 늙었다.

새가 나비가 된다

정말 구름이

비가 된다.

옷자락이

칩다.

1937. 9.